

경험이며, 지역변인은 학교와 지역의 분리, 가난과 실직, 사회의 소속감 결여이다. 학교변인은 학교환경과 학급크기, 학교 훈육에 대한 예상, 학교훈육의 규칙과 형태로 나타나며, 가족변인은 가정폭력, 학대와 유기, 가정훈육에 대한 예상, 가정훈육의 규칙과 형태고. 관계변인은 부모, 교사, 학생 간의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상황적 결정요인, 또래집단/패거리 구성원 등을 말하며, 개인요인에는 사회적 기술과 문제 해결 기술, 유전적 요인, 발달적 요인, 인지적 요인, 신경심리학적 요인, 정신병리 등이 속함. 즉, 학교폭력의 발생을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관계적·지역 및 사회적 차원의 학원문제 영역별 학생과 학부모의 원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이를 치유함으로써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 이유는 34%가 “장난”, “이유 없음”도 18%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장난삼아 다른 사람을 괴롭힘(청소년 폭력예방재단, ‘12)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단을 구성(2005)하여 CCTV 설치, 자원봉사자 운영, 시민단체 지원 등 학교폭력에 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한 해만 특별교부금으로 86억 8,6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학교 구성원들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도시농업 치유적 특성을 활용한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친사회적 행동성향을 향상에 자원봉사활동이 효과적이므로(조학래, 1999),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각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필요 있다(신성자, 2011).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차원의 노력을 위주로 하되 무엇보다 지역 관계기관의 지원체계 정립도 필요하다(이병환, 2010).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후 당사자인 피해, 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리적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제3절 연구 개발 범위

학교폭력 예방과 감소를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어떻게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농업체험 기반의 도시농업 활동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프로그램 적용 효과를 통해 검증하고 이들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노출 수준에 따라 도시농업 활동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관련 진단도구와 프로그램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